

'경제'로 동반자 관계 강화

전북도-중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러우 친지엔 당서기 일행 전북 방문 양 지역간 발전 모색 세계 무역환경 호전시 중국 기업 투자 등 경제 발전 기회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지방 당국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은 중국 강소성의 러우 친지엔 당서기가 28일 전부를 방문했다.

(관련기사 3면·4면)

'魚米之鄉'(쌀과 물고기의 고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곡창지대이자 중국 내 경제규모 2위에 있는 중국 강소성은 전북도가 1994년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첫 번째 지역으로, 그간 양 도시는 네 차례의 단체장 교류가 있었으나 당서기의 전북 방문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화박사인 러우 친지엔 당서기는 산시(陝西) 성장 제일 시절, 삼삼반도체 시안 공장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강소성 당서기 방문을 계기로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각인시켜 향후 세계 무역환경이 호전될 경우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 등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만금과 강소성은 지정학적으로 경제교역에 유리한 위치로, 2014년 양국 정상이 체결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비롯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프버리 유치 등에 따라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의 호기로 삼을 계획이다.

당서기직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도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러우 친지엔 당서기 일행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을 차례로 만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하고, 우정의 징표로 도청 광장에 기념수를 심었다.

양 지역은 올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점차 경제·문화·민간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강소성 당서기 방문을 시작으로 6월에는 전북도지사가 강소성을 찾은 계획이며, 7월에는 강소성 인민대표대회(의회)의 도의회 방문이 예정돼 있다.

고위층간 상호방문으로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학술·예술·인문 교류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강소성 대표단의 공식방문을 통해 경제분야를 비롯해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양 지역 간에는 자매도시로서 25년간 쌓아온 정과 한·중경협단지라는 다리가 놓여있어 경제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해 중국 강소성 러우 친지엔 당서기를 비롯한 방문단이 28일 전북도청을 찾은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쓴 글(장풍 파랑회유시, 직패오법제청해,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의 '행로난'의 마지막 구절)을 선물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강소성은 관광·학술·인문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활발히 교류하며 양 지역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킨 것은 물론 관광객·유학생 유치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진성 기자

소년체전 폐막... 전북, 금 32개 획득

대회 역사상 최고 성적

비인기 종목에서도 '선전' 역도 유동현·권민구 3관왕 사격 김강현·3종 김예나 육상 정연현·역도 김건우 수영 이서아, 2관왕 차지은·동메달도 '우수수'

다관왕도 대거 배출했다.

역도의 유동현(순창북중)과 권민구(용소중)는 각각 77kg급과 94kg급에 출전해 3관왕(인상·용상·합체)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격의 김강현(기린중)과 근대3종 김예나(전북체중), 육상 정연현(신태인초), 역도 김건우(전북체중), 수영 이서아(서일초)가 2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승마의 홍예진(서신중)과 태권도 최환희(전주남초), 에어로빅 김지윤(진포초), 육상 최명진(이리초), 체조 임은성(전북체중) 등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정구와 핸드볼, 사격, 배드민턴, 바둑 등 단체전에서도 귀한 메달이 나왔다.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도 우수수 쏟아졌다.

야구(군산중)와 하키(김제중)를 비롯해 씨름의 박태현(신성초)과 유원(농남중), 양궁 유희현(기린초), 체조 설치현(전북체중) 등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18년 만에 테니스 초등부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이 나왔고, 농구(기린중)와 배구(남성중), 핸드볼(정일여중), 럭비(이리북중) 등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면서 전북 선수단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편 전북 선수단은 이번 소년체육대회에 선수와 임원 등 총 1172명이 출전했다. 소년체전의 경우 과도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시·도 종합순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장은성 기자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이번 소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기록종목과 체급종목 등 고르게 메달 획득에 성공했고 비인기 종목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해주면서 전북 체육의 미래를 밝게 했다.

28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지난 25일 천년고도 익산 등 도내 전 시·군에서 열린 소년체육대회에 이날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은 선전에 선전을 거듭하면서 금메달 32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30개 등 총 8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전력분석 결과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20개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자 지난 2010년 대회에서 기록한 금메달 25개도 넘어선 최고의 기록이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목별로 고르게 메달을 획득했지만

도내 주유소 29곳 '클린주유소' 지정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주유소 2007년부터 클린(Clean)주유소 지정 제도를 운영한 결과 5월 현재 관내에는 모두 29곳이 클린주유소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관내 주유소 947곳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4.4%에 비해 낮아 클린주유소의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2만1759곳의 주유소 중 968곳의 클린주유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클린주유소는 유류 저장 탱크, 배관 등의 주유소시설 설치시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흡입 및 넘침 방지 시설 등 일반 주유소보다 더 강화된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유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

만일의 누출시에도 누유 경보장치에 의한 신속한 감지로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유소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해당 시설의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간 토양오염도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진성 기자

공공성 큰 구간 국비 투입을... 새만금 순환링 도로사업 방안 제시

새만금개발청,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예타조사 등 사업 착수 행정절차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28일 '공공매립과 연계한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용역을 수행한 (주)도화엔지니어링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순환링 도로사

업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다.

순환링 도로는 공공주도 선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3대 용지(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를 원형으로 연결(연장 15.2km)하고, 새만금 지역의 중심부를 동서·남북으로 가

로지르는 십자형(十) 도로와 내부 도로망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사업 부지는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부지로 6.6km로 2020년 말에 착공될 계획이다.

발표된 연구 용역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상(MP)상 신교통수단을 고려해 차로 수와 적정 설속도를 분석했고,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연결방안, 농생명용지의 동진강 방수제 통과방식(교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용지 간 연결교량 2개소 등 공공성이 큰 일부 구간(8.3km)에 대해 국비 투입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청장은 "순환링 도로 주변지역은 새만금의 상징적·기능적 중심지로, 관련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면 용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M NAVER 전북뉴스

JJC전북

지자체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